

## 창조절 제4주일/2019년 9월 22일/한가위 추수감사절

구약: 예레미야서 8,18-9,1

서신: 디모데전서 2,1-7

복음: 누가복음 16,1-13

###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1.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딤후 2,1). 초대교회에 권면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딤후 2,4).

그러나 이런 기도하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가 이념과 계급으로 분열되고, ‘20대 80’의 양극화가 고착되어, 사실과 주장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가짜뉴스들이 증오를 부추겨, 오직 적과 야군만이 있는 흑백논리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한 편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친구들만이 아니라, 적들도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식은 다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진실을 안다고 해서, 온갖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왜곡될 수 있고, 진실은 감추어질 수 있고, 지식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현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잘 보여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딤후 2,2),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지 않는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렘 8,6), 율법을 거짓말로 바꾸는 서기관들(렘 8,8), 백성을 속이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렘 8,10),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 자기 백성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3. 누가복음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른바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 부자 주인에게서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 문서를 바꾸든지 다시 작성하여 자기 몫의 이자 분을 탕감해주고, 해고 후의 자기 생활을 보장 받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소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되어 있어, 독자는 이 청지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이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건드린 것이 아닙니다. 재산관리인으로서 그에게 할당된 정당한 자기 몫의 이자를 삭감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도 이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세상의 재물을 자선에 사용하여 친구를 얻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눅 16,9),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충실하고 슬기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신 것이지요.(눅 16,10). ‘새번

역'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눅 16,9) 또는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눅 16,11)고 번역했으나, 이 단어의 뜻은 '부정직하게 획득한 재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세상적 재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합니다.<sup>1)</sup>

누가는 '세상적 재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할 것임을(눅 16,11), 그리고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몫도 받지 못할 것(눅 16,12)이라고 함으로써, 재물을 성속(聖俗)의 시각에서 이해하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충실함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자신의 노력과 노동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세상적 재물'은 물론 '참된 재물', '자기 것'에는 물론 '남의 것'에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연히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하지 않고, 자족에서 오는 행복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맡겨주신 참된 재물, 곧 자연이 준 모든 선물을 감사로 받고, 자연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서 주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 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눅 16,13)고 말씀하십니다.

재물로 번역된 '맘몬'의 어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설명은 이 단어가 어근(mn, 견고하다)의 명사형(maqtal, 장소를 나타내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사역동사는 'heemin', '믿다, 신뢰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맘몬'은 '신뢰하는 대상'이라는 뜻이 되어, 돈이나 소유로의 의미론적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sup>2)</sup>

---

1) 하워드 마샬, 루가복음(2), 한국신학연구소, 1984, 336; 조셉 A. 피츠마이어, 누가복음 II, 우성훈역, CLC, 2015, 1842.

2) 조셉 A. 피츠마이어, 누가복음 II, 우성훈역, CLC, 2015, 1841-1842.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은 견고한 안정만이 아니라, 자유도 줍니다. 그래서 보이는 맘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재물을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거나, 하나님만 떠받들고 재물은 업신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앞서 있었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재물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금욕주의적 수도자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맘몬 숭배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길로 인도하는 현실로부터 제자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단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자들,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도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위치에 있지 않은 소시민인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큰 재물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 때문에 큰 재물을 포기해야 하는 시험에 빠지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 맘몬 사이의 선택은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지요.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감사와 함께 이웃과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맘몬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진리이고, 우리를 구원, 곧 자유으로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5. 저는 농부가 아니어서, 가을이 주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일에 다만

소비자로서 참여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가 거두는 수확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포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작, 결실이라면, 자연에게는 끝이자 낙엽인 셈이지요. 시작과 끝은 결국 같은 것이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저의 추수감사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거둔 영혼의 추수가 하나 있다면, 건축가 승효상의 수도원 순례기, ‘묵상’(2019년, 돌베개)을 읽은 것입니다. 유럽의 수도원들을 찾아간 이야기이지요. 먼저 도착한 로마 근교 산 칼리스토 카타콤베에서 그는 묘지와 수도원 사이의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카타콤베가 순교자들이 ‘스스로 삶의 경계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곳이며 이로써 평화를 얻은 곳’이라면,<sup>3)</sup> 수도원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추방한 사람들의 공간’<sup>4)</sup>, 수도자들이 ‘세상 모든 인연을 끊어 평화를 얻은 곳’이라는 것이지요.<sup>5)</sup>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삶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순교자),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추방한 사람들이(수도자) 도달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진실로 자유한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돈과 명예, 모든 형태의 성취욕, 마침내 자기 목숨으로부터도 자유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지요.

건축가 승효상은 순교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지만, 자유의 도상에서 평화를 찾은 인물을 소개합니다. ‘희랍인 조르바’의 작가로 알려진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Nikos Kazantzakis, 1883-1957), 그러나 ‘최후의 유혹’으로 신성모독죄로 파문당하여, 무덤조차 크레타 섬 헤라클레이온의 성 밖으로 추방되어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홀로 묻힌 그의 묘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아무 것도 바라는 것이 없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

---

3) 승효상, 묵상, 돌베개, 2019, 81.

4) 승효상, 묵상, 돌베개, 2019, 23.

5) 승효상, 묵상, 돌베개, 2019, 84.

없고, 교회로부터 비록 파문당하기는 했으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마침내 자유 자체가 된 인물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은 용기가 없어 아직 그럴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아직은 추방할 수 없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순례한 무덤과 수도원에서 찾은 자유와 평화를 그 책을 통하여 선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딤후전 2,4).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2). 요한의 증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견고히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지요. 그러나 맘몬에 매달려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커지는 것은 부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오직 믿음에서 옵니다.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되는 것이 모순과 역설, 절망과 기적으로 가득 찬 현실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범사감사의 신앙입니다.

### <설교 후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딤후전 2,5-6),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딤후전 2,4),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참된 평화와 자유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증으로 쓰임 받게 하시옵소서(마 25,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봉헌기도>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공휼을 베푸시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즐거운 마음과 찬양으로 함께 봉헌하오니,  
그 위대하심 측량할 길 없는 주님,  
우리가 바치는 이 작은 예물, 다만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mammon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지킬 수 있을 만큼 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오니(시편 145,3-5),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는 주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 '타파'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시편 145, 17-2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